

나주시, 배 과수 월동해충 막아야...조피 제거·적기 방제 당부

기계유유제 사용시 해충 밀도 억제·산란 막을 수 있어 방제적기 20일...석회유황합제 뿌릴 시 15~20일 간격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가 본격적인 배 생육에 앞서 월동 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한 과수원 '조피작업'(나무 껍질 제거)과 적기 방제를 위한 농가 현장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14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른 봄 주경배나무이(꼬마배나무이), 응애류, 각지벌레 등 월동 해충이 발생하는데 기계유유제를 사용하면 해충 밀도를 억제하고 산란을 막을 수 있다.

기계유유제는 곤충 표면에 피막을 형성, 호흡을 못하게 만드는 방제 효과가 있는 살충제

로 기계유에 유화제를 섞어 만든다. 특히 지난해 각지벌레, 복숭아순나방 피해가 심했던 과원은 기계유유제 살포 전 '고압 박피기' 등으로 나무의 거친 껍질을 벗기는 조피작업이 필수다.

조피작업은 월동 해충의 밀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약제 부착 효과도 높인다.

기계유유제는 30~40배(약 12.5~170/물 500ℓ) 희석해서 나무의 거친 껍질과 가지, 열매가지 등에 살포한다.

다만 산란된 알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산란 전 방제하는 것이 최적이다.

배 그늘음병으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주경배나무이의 경우 기온이 따뜻해지는 2월에 나무의 거친 껍질 밑에서 월동하는 어른벌레(성충)의 약 80%가 나무 위로 이동했을 때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올해 방제적기인 2월 20일 전후에 기계유유제를 살포해야 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줄기마름병이 많이 발생하거나 찬 기온이 정체를 통해 피해가 잦은 농가는 약해를 우려해 기계유유제 대신 적용 등록 약제를 사용하여 적기 방제해야 한다.

또 기계유유제 살포 후 석회유황합제를 뿌릴 때는 15~20일 간격을 두어야 안전하다.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월동해충 방제 시기를 놓치면 배꽃이 필 무렵부터 수확까지 방제 노력이 배가 되는 만큼 조피제거와 기계유유제 살포를 적기에 살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군,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 위한 자주재원 확충 군·읍면 팀장회의 개최...지방세수 확보 위한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담양군은 2023년 지방세 목표액(군세) 401억 원을 설정하고 자립형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군·읍면 담당 팀장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세 목표 달성 및 체납액 징수,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되는 세수가 없도록 하고자 회의를 개최해 군·읍면 지방세 담당 팀장을 중심으로 지방세 현안 업무대책 및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군·읍면 합동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운영하고, 부동산 및 차량 금융재산 등에 대한 압류,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2023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화순군은 국가 공모사업 획득을 위한 2023년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구북구 군수 주재로 부군수, 전 실과소장 등이 참석하여 2023년 확보 가능한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전략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다른 공모사업은 문화·관광, 농업축산, 도시개발, 도로교통 등 각 분야에서 공모 중이거나 지원 계획 중인 사업들로 사

업비 규모로는 414억 원에 육박한다.

주요 공모 사업으로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300억 원) △노후관광지 재생사업(20억 원) △지역활력 문화공연 지원사업(1억 원) △동면 동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1억 원) △춘양면 가봉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0억 원) 등의 사업이 포함 되어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지역자활센터 쌀 디저트 카페 '곳간이 자연' 오픈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과 자연 추구형 카페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양철승)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2023년 2월 13일(월) '곳간이 자연' 쌀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다.

식량이나 물건을 간직해 보관하는 곳간과 자연을 덧붙여 카페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국산 재료와 구례의 자연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곳간이 자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곳간이 자연'에서는 구례 쌀을 이용한 다양한 쌀 쿠키와 빵을 선보였는데 특히 구례의 대표적인 산수유를 이용한 산수유 쌀 쿠키를 출시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와 자

활 기반을 조성하여 자립과 창업 및 자활사업 등의 상위 발전 단계를 지향하며 참여자의 자활역량 의지를 향상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경제적 자활과 잠재 욕구 충족을 통한 사회적 자활을 지향한다.

구례의 특산품인 산수유와 썬부쟁이를 활용하면서 자활사업단 내 생산품인 새싹인삼, 비트 등 자활사업단의 상생을 통해 자활 참여자에게는 소득 창출과 안정적 일자리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역민의 여가 활용과 편의의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징검다리 공간으로 쌀 쿠키와 자활생산물품을 판



매, 자활 참여자에게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구례지역자활센터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전남 최초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

곡성군이 올해 전남 최초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구치아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만 7세 전후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로 충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치과 주치의 사업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구강 건강 격차 해소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2월에 곡성군 치과의사회, 교육지원청이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내 7개 치과의원이 협약 의료기관으로 참여해 초등학생들의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주치의가 돼주었다.

진료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치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치과의원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이후 치과의원을 방문해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서와 개인 정보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강검진, 치석 제거,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의 예방 진료다. 치아 상태에 따라 충치 치료, 발치 등의 치료뿐만 아니라 올바른 칫솔질과 바른 식습관 교육 등



구강보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곡성군의회 조대현 의원이 초등학생 구강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다.

곡성=양해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